

시론



주홍

치유예술가·샌드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신축년 새해에도 마스크를 썼다. 작년에 그린 인물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도 내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인류가 저지른 악행과 과한 욕망에 죄 값을 치르는 우울한 새해다.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명상 중이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한다. 눈을 감으면 모든 세상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을 뜨면 분리된다. 명상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통합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명상 중에는 연결돼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고요와 평안이 찾아온다. 영감의 원천과 마주하고 호흡이 느리고 고요하며 맑아진다. 2020년에 그린 눈을 감은 자화상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고 온 세상이 연결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쓴 자화상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평안과 고요라는 두 측면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2020년을 보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상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거대하고 단단한 덩어리로 보이는 것, 야생동물과 인간, 너와 내가 연결돼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연결돼 있고, 대통령과 시민이 연결돼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대통령도 영국총리도 흑인도 백인도 분별하지 않았다.

모두 연결돼 있으니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연결돼 있음을 깨우치게 했고 한 명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집단을 감염시키는지를 확인시켜줬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타자를 배려하는 선한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줬다. 그 타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 전체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태도, 도덕성에 대한 진지한 전환의 시기였던 것이다.

2020년을 돌아보니, 많은 것이 무너지는 한 해였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무

너졌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개인적으로는 홍수로 작업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작품들과 책들을 버렸으며, 작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광장에 서 그림 그리는 퍼포먼스 작업은 현장에 나 혼자 있었다. 아니면 동료작가 3-4명이 각각 떨어져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해야만 했다. 광장은 비어있고 사람들은 집에 있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하는 일들이 무산되기 시작했다. 학생 없는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관객이 없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 없이 야구나 축구를 하며, 영상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영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직접 만나도 터치가 사라졌다. 반갑게 팔을 벌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악수를 청하면 무례한 상황이 된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격좌이체로 마음을 표현한다. 힘겨운 1년을 살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문화의 전 영역에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2차 세계대전 사상자를 넘어서는 확진자의 숫자는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신축년이 찾아왔다.

비대면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인간의 대처

능력보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 전을 생각해보면 몇 달 후면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던 멀리 있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1년을 넘기게 됐고, 곧 끝날 것만 같았던 마스크 쓰기가 일 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역병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전 세계인의 우정과 연대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지구 생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빙하가 녹아 백곰이 삶의 터전을 잃으면 인간의 삶의 터전도 바다에 잠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대량생산 대량소비구조의 물질문명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한다. 시스템과 문화의 대 변화가 요구되는 신축년이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배달문화가 빠르게 정착했다. 배달 음식이 남긴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집단 지성이 움직여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능력보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 전을 생각해보면 몇 달 후면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던 멀리 있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1년을 넘기게 됐고, 곧 끝날 것만 같았던 마스크 쓰기가 일 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역병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전 세계인의 우정과 연대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지구 생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빙하가 녹아 백곰이 삶의 터전을 잃으면 인간의 삶의 터전도 바다에 잠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대량생산 대량소비구조의 물질문명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한다. 시스템과 문화의 대 변화가 요구되는 신축년이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배달문화가 빠르게 정착했다. 배달 음식이 남긴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집단 지성이 움직여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역병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전 세계인의 우정과 연대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지구 생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빙하가 녹아 백곰이 삶의 터전을 잃으면 인간의 삶의 터전도 바다에 잠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대량생산 대량소비구조의 물질문명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한다. 시스템과 문화의 대 변화가 요구되는 신축년이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전 세계인의 우정과 연대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지구 생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빙하가 녹아 백곰이 삶의 터전을 잃으면 인간의 삶의 터전도 바다에 잠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대량생산 대량소비구조의 물질문명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한다. 시스템과 문화의 대 변화가 요구되는 신축년이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전 세계인의 우정과 연대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다. 지구 생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社說

5·18기록물 통합DB 구축의 의미

2021년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의 뜻깊은 해다. 5월 항쟁 관련 기록물과 유품 등 문서 4천271권 85만8천904쪽, 흑백사진 2천17컷, 사진 1천733장으로 2010년까지 최종 수집돼 이듬해 5월 등재됐었다.

5·18은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데,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사에 관한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18 기록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오랜 숙원이던 40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만큼 그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기록물은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 유공자 보상과 관련해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하지만 400만여건에 달하는 분량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원상대로 보관되면서 소실이나 변형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물형태로 보존서고에 있어 열람과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통합DB가 구축되면 5·18의 다양한 기록물을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게 돼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록관은 만고율이 90%에 달하는 보존서고도 확충해 기록물을 한데 모으고 훼손과 멸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80년 5월 당시의 생생한 기록물은 세계유산으로 당연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에 다름 아닌 것이다.

통합DB가 완성된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기록물 기증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소명에 전력해 주길 당부한다.

코로나 고발·과태료 조치 더욱 단호하게

연일 두자릿 수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광주에서 이동동선을 숨기거나 집합금지 명령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새해 들어서도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지극히 안이한 인식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위협해지는 모습이다.

4차레 지역 내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84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1건 등 총 185건에 이른다.

고발은 유흥시설 35건, 노래방·PC방 9건, 교회 4건, 방문판매업 2건, 집회 주최 1건, 자가격리 위반 33건 등이다. 유흥시설 중 소주방 1건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식당·카페 92건으로 가장 많고, 유흥시설 8건,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식당·카페 62건, 유흥시설 3건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는 광산구 요양병원 등에서 새로운 집

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영업금지 형평성 논란 등에 방역당국이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하나, 코로나로 모두 지치고 힘든 생활에서 작은 방심, 일탈은 용납될 수 없다. 현장에서 혼선도 있지만 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수칙 준수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 아직은 인내해야 하는 시기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국민 누구나가 염원하고 있다. 앞으로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불미스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바란다.

그래픽 뉴스

코로나에도 수입차 최다 판매…전년비 1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벤츠와 BMW 등 인기 브랜드의 신차 출시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27만4천859대로 전년(24만4천780대)보다 1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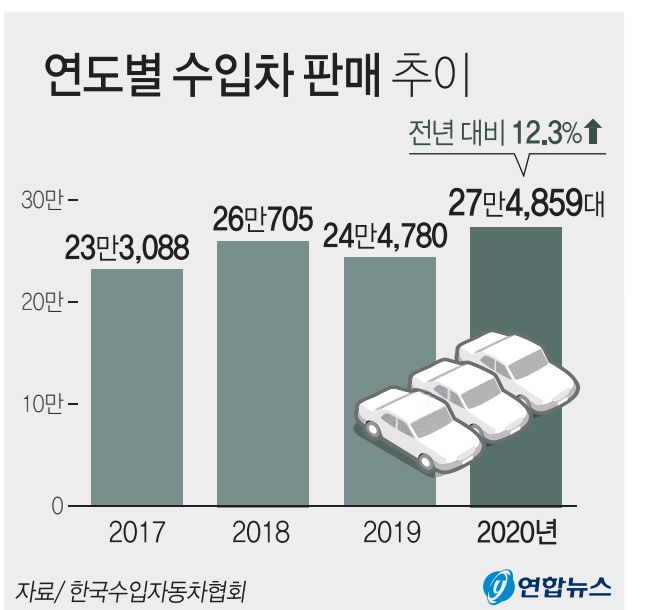
브랜드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판매량은 7만6천879대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벤츠는 작년 10월 출시한 E클래스의 10세대 부분변경 모델이 인기를 끌며 총 3개 모델이 베스트셀링 10위 안에 포함됐다. 2위를 차지한 BMW는 5만8천393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지난 10월 국내에 출시한 뉴 5시리즈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3위인 아우디는 작년 한 해 총 2만5천513대를 판매하며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폭스바겐(1만7천615대), 볼보(1만2천798대) 쉐보레(1만2천455대), 미니(1만1천245대)가 모두 1만대 이상 판매됐다.

국가별로도 유럽 브랜드(22만1천141대)가 80.5%를 차지했고 미국(3만3천154대), 일본(2만564대) 순이었다. 일본 브랜드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4만6천455대)는 전년 대비 67.6% 증가했고, 전기차(테슬라 제외, 3천357대)는 41.7% 늘었다.



기고



이정선

前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지난해 11월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정초부터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제 겨우 16개월 밖에 안되는 유아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게 한다. 동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건을 포함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5천657건에서 2014년 1만27건으로, 현재는 3만45건으로 2014년 대비 33.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신체·정서·성·방임)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이었다.

아동학대 장소로는 가정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 돌봄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순이었다. 2019년 부모(행위자 순서: 친부모, 계

부, 계모,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가 2만2천70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만 해도, 2018년 28명, 2019년 42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지역은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9년 1천89건(2.8%)에 달하지만 실제 학대받는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포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가해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가해 부모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만 한정하기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세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 아니 구성원들 모두, 그 중에서도 성인들이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들, 성과지상주의, 폭력

없는 출세주의, 승자 독식의 1등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사회,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희생돼도 된다는 인명경시 풍조 및 도구적 인간관이나 가치관이 암묵적으로 문제의 배경이 됐다.

특히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사나워진 현 세태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관계자, 사회 지도층의 코스프레(위선), 행동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나약함,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고 생각하는 대중들의 무관심이 총체적으로 반복되는 악행을 낳지 않았을까?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한 점과 아이를 마을이 함께 기르려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 거기다가 부모들의 왜곡된 자녀관도 한 몫을 했다. 즉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착각하는 자녀관이 그 지점이다.

직접적으로는 가정불화, 경제문제, 그리고 정신적 질환, 즉 분노조절 장애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부재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지가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다. 현대 사회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즉 한 번도 부모가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했던 과거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가치관을 구축하는 일, 아동폭력 근절센터 등 학대 받는 가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 즉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사람의 삼각미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대처 매뉴얼의 개발 운영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뒤 사용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하용 전력의 80%만 사용한다.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 지역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 공간 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도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뒤 사용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하용 전력의 80%만 사용한다.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 지역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 공간 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도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기를 사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주의해야

평창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의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며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대 난방용품은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대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화목보일러 1천180여건, 전기열선 1천200여건, 전기히터·장판 1천600여건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겨울철이 다른 계절보다 높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공간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가연성 물질인 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며 난방용품은 KS 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한다. 특히 난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뒤 사용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하용 전력의 80%만 사용한다.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 지역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 공간 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도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뒤 사용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하용 전력의 80%만 사용한다.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 지역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 공간 방용품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도 않도록 주의하며 가슴기를 사

주변에는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화목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화목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는다. 연통과 투입구 주변은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안전하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만 관심을 두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화재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김정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